

政府에 招聘되어 「主席書記」로서 赴任하였던 木村靜雄氏의 回顧錄에도 明記되어 있습니다.

「願컨대 新羅文化的 保存上에 多幸 있기를 祈願할 뿐이다. 그리고 나의 赴任前後에 盜兒들에 의하여 換金되어 內地(日本)로 搬出되어 있는 石窟佛像 二軀와 多寶塔 獅子一軀와 其他의 礎龍等 貴金物の 返還을 得하여 保存上의 完全을 얻는 것은 나의 終生の 所望이다. (朝鮮 に考朽して) 一九二四年刊」

이와같은 搬出紛失 또는 賣買의 記錄은 數種文獻에서 볼 수 있는 바인데 이 石像 兩軀에 對하여 日帝는 石窟修理當時에 窟內에서 出土된事實이 없음을 말하고 있을 뿐 그 以上의 言及은 없읍니다. 筆者는 日帝에 의한 第一次修理에 앞서서 佛國寺와 石窟庵으로 부터 이와같이 運搬이 容易한 塔像等이 日本으로 搬出되었고 그들이 日本에 現存하고 있다고 믿는 바입니다. 이같은 塔像은 비록 小形의 作品들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至寶인 石窟의 完全復舊와 그가 속깊이 지니고 있는 意義와 美에 對한 우리의 自覺과 研究를 위하여서는 더욱 注目되어야 하며 現品은 原位置에 返還되어야 할 것입니다. (一九六一·八·一)

### 石窟庵에서 發見된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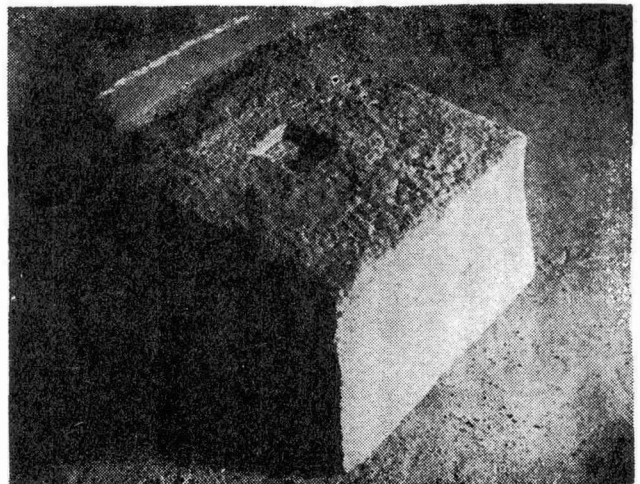
秦 弘 燮

一九二三年 石窟庵 石窟의 解體補修工事が 始作되어 本尊을 除外한 全壁面과 天井이 解體되고 窟內外의 地面을 整理할 때 地表上에서 많은 遺物이 發見되었다. 그 中의 몇點은 이미 널리 紹介된 바 있는데 여러가지 事實을 暗示하여주는 遺物이 紹介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 中에는 지금 그 所在가 不明한 것도 있어서 全部를 紹介하지는 못하겠으나 可能한 限 出土遺物을 이에 紹介하고자 한다.

甲、石造物類

#### 一、石彫小寶塔

現 總高 二·一尺  
塔身幅 〇·五五尺  
——〇·五七尺  
塔身을 四段으로 區分하고 各段에 六基석의 塔과 塔 사이에 上下로 佛坐像이 彫刻되었다. 밑은 破損되어 알 수 없고 屋蓋는 四注式이며 받침이 三段 있다. 그 위에는 露盤, 覆鉢과 六輪이 남아 있고 以上은 破損되었다.



石窟內石塔臺石(十一面觀音前)  
(方形舍利孔이 보인다. 1961. 8. 12 調査)

#### 二、金剛力士像 頭部 一、左手 一、左腕 一、

頭部 現高 一·八五尺、手 現長 〇·六五尺、腕 現長 一·五七尺  
以上四點은 朝鮮總督府 發行「佛國寺と石窟庵」에 收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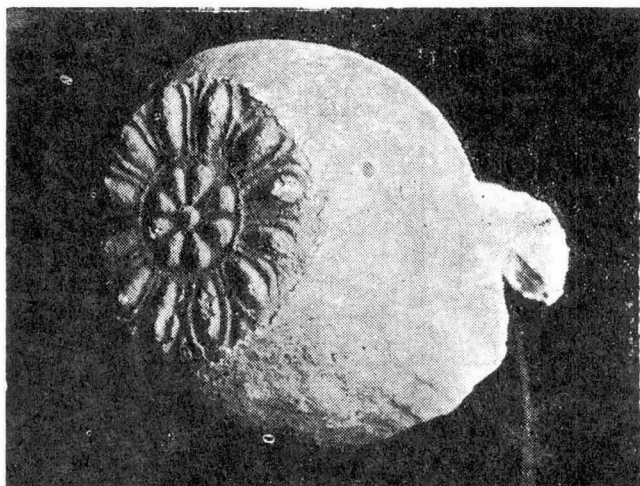
#### 乙、鐵造物類

##### 一、正 八個 圖面 A

모두 四角正으로 길이는 그다지 길지 않다. 어떤 것은 길이가 짧아서 손에 쥘 수 없을 정도이다. 아마 자루에 매서 彫刻用으로 使用하였으리라 고 생각된다.

##### 二、은장 四個 圖版 C

石材와 石材를 連結하기 爲하여 使用되었던 것이다. 所謂「주먹은장」으로서 原來의 길이는 一尺가까운 기장이었으리라 고 생각되나 모두 切斷되었을 뿐 아니라 각각 別個의 것이다. 一九二三年 修理時 이것을 본



石窟庵에서 新發見된 圓筒形蓮花文瓦  
(1961. 3. 東南方溪谷工事에서 出土)

며서 新造使用하였다.  
三、鐵釘 十個

圖面B

모두 古式에 依한 四角鐵釘이다. 크기와 形態는 大概 五種으로 區別된다.

길이가 特別히 길고 둥근 못대거리가 있다. 一個(圖面B1)

길이는 그다지 길지 않으나 못대거리가 유난히 넓적하다. 一個(圖面B3)

5)

길이는 짧은 편이나 큰 못대거리가 있다.(圖面B 2)

길이는 제법 길고 못대거리가 없다. 一個(圖面B 4)

어느 것이나 녹이甚하다. 이 외에 鐵釘의 種類는 發見되지 않았다.

이 鐵釘의 發見으로 因하여 무슨 木造架構가 있었던 것이 確實하며 或은 前室 天井을 덮었던 屋蓋의 석가래같은데 使用하였던 것이 아니었던가 짐작된다. 或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木製門扉가 豫想되니 문에도 使用하였으리라 생각된다.

四、문래쇠 四片 圖面D、F

門의 開閉를 容易하게 하기 爲하여 문추 밑에 製置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石窟 前面에 木造門扉가 있었던 것이 짐작되며 이것

을 復原하면 全直徑約五寸五分이며 內孔徑이約二寸으로 比較的 두 점고 큰 門이었으리라는 點은 前室 石像의 크기와도 堪案하여 짐작된다.

五、고리 一個 圖面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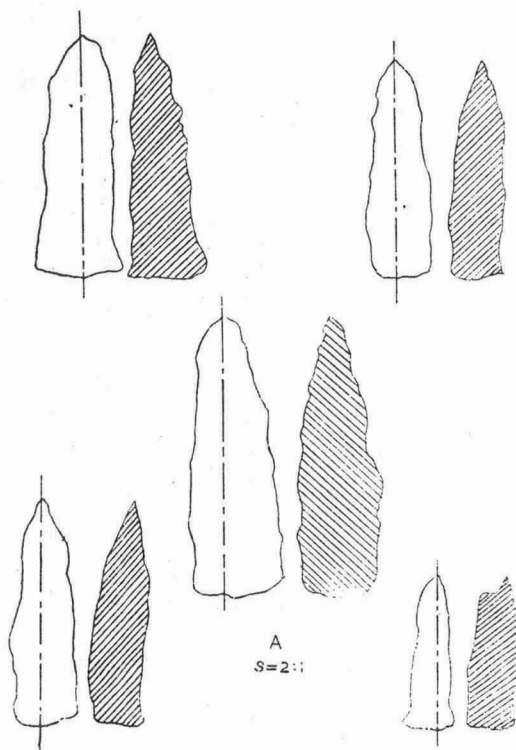
보족한 끝을 걸쳐서 물린 고리로서 前面에 想定한 木製門扉에 附屬되었던 고리로 생각되나 손잡이 고리로서는 너무 적음으로 다른 部分에 달았던 裝飾物이 아닌가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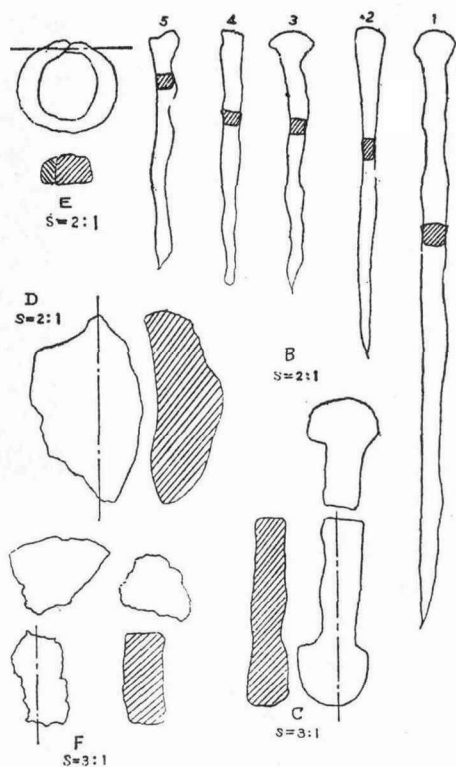
丙、瓦 類

一、숫막새 六種

모두 新羅下代의 것들이다. 一點을 除外하고는 모두 周緣에 連珠文이 있다. 그 中 二種은 單瓣蓮花이고 一種은 複瓣蓮花고 一種은 同心圓으로 二區로 區分하고 內圓에는 單瓣、外圓에는 複瓣蓮花를 二重으로 配置하였다. 남은 二種은 寶相華文인데 그 中 하나는 子房에서 放射하는 陽刻線을 나타냈으며 다른 하나는 周緣에 花文이 彫刻되었다.

二、암막새 四種





1, 雙鳳文唐草瓦當 周緣에는 連珠文이 있고 밑에도 唐草文이 있다. 圖案이 제법 整頓되었었고 刻線도 날카롭다.

2, 唐草文瓦當 周緣에는 連珠文이 있고 中心에는 花文이 있고 그 右에 있는 唐草文이 있으나 모두 線이 弱하여 時代가 떨어져진다.

3, 鬼面文瓦當 二種 周緣에는 亦是 連珠文이 있고 中央에 鬼面을 두 고 左右에 相稱的으로 唐草文이 있으나 더욱 簡略化되었었다.

三, 암기와

特殊한 것은 없으나 「石佛」銘이 있는 破片이 單一枚 있는 것은 매우 貴重한 資料라 하겠다. 이 외에 「스」字가 陽刻된 것이 있는데 무엇을 意味하는지 알 수 없다.

四, 鬼面瓦 二種

조그마한 破片으로 顔面도 매우 破損되었었다. 原形은 그다지 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며 그 製作도 下代에 屬할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 기와의 發見은 무엇보다도 明確히 木造建築物이 存在하였던 것 을 말하고 있으며 「石佛」銘의 瓦片은 石窟이 石佛寺의 屬庵이었다는

三國遺事의 記錄과도 符合된다. 丁, 其他

記錄에 依하면 本尊 白毫가 發見되었었다 하나 現品의 所在가 不明일 뿐 아니라 筆者도 보지 못하였으므로 자세한 것을 紹介할 수 없다. 다만 水晶製 白毫를 嵌入하였고 鍍金하였었다는 記錄이 있을 뿐이다.

이외에 博破片 二個가 發見되었었으나 아직 調査하지 못했다. (甲, 乙, 丙의 各遺物은 現在 慶州博物館에 所藏되어있으며 그 中一部는 陳列하고 있다)

石窟庵 保存의 經緯

秦弘燮

一, 日本人들의 補修

一九一三年부터 一九一五年年에 걸쳐 數萬圓의 經費로서 朝鮮總督府 直營으로 石窟全體를 解體하고 破損된 石材는 新材로 補充하였다. 돌을 約三尺 두께의 콘크리트로 덮었으며 그 위에 물탄을 덮은 다음 盛土하였다. 石窟後面에서 나오는 地下水를 處理하기爲하여 自然岩石에 二個 所의 水漕를 만들고 鉛管으로 두 水漕를 連結하여 外部로 排水하게 만 들었다.

이 工事로 因해서 頽落되었던 石窟의 面貌는 外觀上 一新되었으나 前 屋上部는 原形을 짐작할 수 없으리만치 變形시켰으며 石窟周圍를 콘크 리트로 덮고 前面을 開放한 關係로 流入하는 안개의 處理를 考慮하지 않았고 따라서 窟屋內部的 靑苔發生을 막을 길이 없었다.

그 後 數年이 經過하는 사이에 石窟周壁外의 콘크리트에는 龜裂이 생 기고 地下水는 二個의 水漕로서는 堪當하기 어렵게 되어 그 사이에 部分 的인 補修를 繼續하였으나 드디어 一九二〇년부터 一九二三年에 걸쳐 總 工事費 一六,九八五圓을 들여 再補修를 實施하게 되었다. 石窟周圍全